

발행인 | 이병호 편집 |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제 181호

주소 | 560-912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전화 | (063)285-0041 팩스 | (063)283-9365 http://j catholic.or.kr E-mail | catholic14@hanmail.net

강론 ...

성삼위로 충만한 세상은 축복



왕수해 신부
(성바오로 복자병원 원목)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씨를 던지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 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던지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창세 1,11-12). 그 명을 따라 푸른

생명들이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우거지고 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탐스런 열매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오늘도 이렇게 성부께서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시며 창조된 만물을 기르시고 계시다. 하느님은 창조된 세상의 한 중심에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다.(창세 2장).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눈을 돌려보면 이 세상의 더러움과 아픔을 보게 된다. 창조된 만물 중에 우리 인간만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다. 이라크 전쟁, 아프리카의 빈곤, 매일 매일의 살인강도 소식, 우리 각자가 쉬지 않고 짓고 있는 죄들. 거룩하신 하느님과 함께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더럽고 더럽다. 그런데 더러운 우리를 성자께서는 매일 매일 씻어주고 계시다. 십자가의 속죄로, 세상에 흘린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고 계시다. 십자가의 속죄로, 세상에 흘린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우리의 걸음을 희게 빨아 주고 계신다(묵시 7,14). 성자께서 세상과 우리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느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성부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심연 위에 테두리를 정하실 때 나 거기 있었다.”(잠언 8,27). 그래서 성령은 우주 만물을 꿰뚫고 계신다. 우주만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깊은 곳, 신비까지도 통찰하고 계신다(1코린 2,10). 그래서 그분은 바람처럼 만물에 충만하고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내려 오신다. 죄인의 영혼 속에서는 회개의 은총으로 새 인간으로 바꾸고, 의인의 영혼 속에서는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북돋아 주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느님으로 충만한 세상, 세상이 아무리 암울해도 성삼위께서 계시는 한 이 세상은 축복받은 곳이고 우리의 희망은 영원할 것이다. 영광과 찬미와 감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영원히 아멘.

숲머리 생각



이상구(도마)

성 보니파시오(673-754)

윤 클레멘트 신부
교구청 사무처

독일지역의 사도였으며 주교이고 순교자인 그는 영국의 크리드톤에서 태어났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그가 다섯 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집을 방문했던 베네딕토회 수도자들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아 그의 삶을 주님께 바치기로



했다 한다. 그리고 그는 열세살이 되었을 때부터 엑시터의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후에 그 수도원에서 베네딕토회 수도승이 된다.

그에게는 배움에 대한 열망과 기쁨이 매우 컸는데, 이후 그는 맨체스터 교구로 가서 배우기를 계속한다. 수도원의 아빠스는 종종 그에게 가르치는 직무를 부여하기도 했는데, 그의 나이 서른이 되었을 때에 그는 사제품을 받는다. 사제품을 받고난 이후 그는 강론에 많은 힘을 기울이는데, 그의 강론은 무엇보다도 복음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그 무엇보다도 선교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던 그는, 716년에는 아빠스의 허락을 받아 프리스랜드의 이교인(異敎人)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그의 복음선교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영국으로 돌아오고 수도원의 아빠스로 선출되지만, 얼마가지 않아 그는 그 직무를 사임한다.

선교에 대한 열망은 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는데, 교황 그레고리오 2세의 허락을 받아 독일지역으로 가서, 그곳의 이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처음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겪기도 하지만, 그는 이내 그곳에서 수많은 이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다. 그의 헌신적인 복음선교와 봉사는 독일전지역에 걸쳐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를 세우게 한다. 교황 그레고리오 3세는 그를 마인쯔 교구의 주교와 대주교로 임명한다.

그는 자신의 생애가 끝나기 전 몇 년간은 네덜란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힘을 기울이기도 한다. 그는 81세가 되는 해의 어느 날, 프리스랜드 지역을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방문하고 있었다. 그가 천막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리스도교에 적대적이던 이교인들이 천막 안으로 들어닥쳤다. 그리고 그 침입자들 중의 한 사람의 칼에 찔리어, 그의 육신은 죽고 영혼은 평생 그가 섬기고 사랑하던 하느님께로 떠난다. 그는 자신의 숨결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온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다음의 말을 남긴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꿈꾸어오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갈망해온 그 자유의 순간이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그리고 영웅적으로 이 복된 은총의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소나무의 가지치기

푸르른 녹음이 절정을 이루는 계절이다. 가끔 이런 녹음 속에다 내 마음을 담고 싶어서 산에 가곤 한다. 한참을 산을 오르면 나무들이나 풀들은 한껏 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에 여념이 없다. 제 각각의 모습으로 작은 하모니를 만들며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면, 그 작은 몸짓 하나 하나가 소중하기 그지없다. 마음껏 가지를 펼치며 자유분방함을 나타내는 생강나무, 탐을 쌓듯 층층이 제 몸을 불러가는 층층나무, 제 가지를 뺏어 다른 나무를 포옹하는 다래나무, 많은 잎사귀를 흔들며 꽃구름을 만드는 이팝나무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나무가 있다. 그것은 지조와 충절의 상징인 소나무이다.

다른 나무들은 제 가지를 뺏어 숲에서 제 세력을 넓히는 반면에 소나무는 키가 정중 크고, 가지가 잘려져 있다. 참에는 조림가가 있는 산도 아닌 야산인데 어쩌서 소나무마다 가지가 잘려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누가 일부러 잡목이 섞여 있는 잡목림에 소나무만 가지를 치고 갔을까 참 궁금했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저 높다란 나무를 다람쥐 기어오르듯 올라가는 사람이 있나보다 생각했었다. 어떨 때는 싱싱한 솔잎을 매단 가지가 내 발 밑에 툭 떨어질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구심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일순 사라지게 되었다. 소나무는 유난히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는 거, 그래서 조금이라도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부득불 제 목숨 같은 가지를 쳐낼 수밖에 없다는 것



김계숙 요안나
(가톨릭문우회)

이다. 거대한 몸집으로는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없어 조금씩 가지를 쳐내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홀로 가지를 쳐내야 하는 소나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좀더 하늘과 햇빛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과감히 제 가지를 쳐내는 소나무의 용기에 박수를 쳤다. 나는 과연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지들을 쳐내고 있는지,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려 애쓰는지 고개를 숙였다. 언제 내가 주님을 목말라하였는지, 애타게 그리워하였는지 까마득하다. 지금부터라도 게으름, 나태, 거만, 교만, 거짓, 인색, 방탕이라는 죽은 가지를 쳐내고 겸손, 온유, 사랑, 희생,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완덕에 이르는 길은 소나무의 가지치기와 같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느님께로 향할 때만이 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당송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의 외아드님과 성령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정녕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셨나이다.

제1독서 잠언 8,22-31

회답송 시편 8,4-5,6-7,8-9(◎ 2가)

◎ 주님 저희의 주님, 온 땅에 주님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나이까!

제2독서 로마 5,1-5

복음 환호송 묵시 1,8 참조

◎ 알렐루야.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있으소서. ◎

복음 요한 16,12-15

영성체송 갈라 4,6 참조

진정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시어,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시도다.

교구 설정 70주년 기념 교리교사의 날 행사



청소년 교육국(국장=김정현 신부)은 5월 24일(목) 해월리 피정의 집에서 각 본당의 초·중·고등부

교리교사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리교사의 날 행사를 가졌다. 야외에서 창세기 그룹사운드와 함께 입체미사로 진행된 미사를 통하여 이병호 주교는 “교리교사는 하느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증인이 되도록 하십시오”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미사 중에는 각 본당 교사회에서 준비한 교사집계가 봉헌되었으며, 장기근속교사와 장학금 및 교재연구비를 받는 교사 84명에 대한 시상식도 거행되었다. 올해로 16년 근속을 한 김진숙 미카엘라(신평 성당) 교사를 포함하여 10년 이상 근속을 한 교사는 14명이며, 이들에게는 일본 성지순례 여행권이 부상으로 수여되었다. 이외에도 7년 근속 6명, 5년 근속 22명, 3년 근속 26명의 교사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특히 12년 근속을 한 김효정 글리체리아(문정 성당)와 박현희 임마누엘(순창 성당)교사에게는 교황님의 강복장이 수여되었다.

손희정, 김영수 기자

● 합열 성당 희망 콘서트 개최

합열 성당(주임=강명구 신부)은 지난 5월 26일(토) 어린이, 학생 미사 후 본당 잔디 광장에서 전주 교구 청소년 교육국 주관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우리가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를 갖고 찾아가는 희망 콘서트를 개최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김정민 지도 신부의 공연 전 격려사에서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큰 꿈을 펼쳐서 희망을 일구어내는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을 강조했다.

문화 관광부 청소년들 유익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본 공연은 창세기 보컬 멤버의 열정적인 무대를 과시하였고 400여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본 공연은 합열 지역의 비신자들에게도 많은 감동을 주었고 노

래하는 선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홍보국 정리

● 숲정이 성당 남양 성모성지 순례

숲정이 성당(주임=한봉섭 신부)은 지난 5월 24일(목)에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남 대천 요나 성당과 경기도 화성 남양성모성지를 순례했다.

이날 순례는 숲정이 성당의 구세주의 모후, 능하신 동정녀, 성모성심 3개 꾸리아에서 주관하여 소속 레지오 단원들은 물론, 입단 대상자와 예비자 입교 대상자들을 적극적인 권유로 합류하여 마련된 자연스런 친교의 장으로써, 이름없이 죽어간 무명 순교자의 얼을 본받는 나들이였다.

이원엽 기자

부동산 경매 실전 재테크

- 수강 회원 모집 -

기간 : 2개월 과정
모집반 : 주, 아카데미(소수정원제)/주 2회
학습관 : 중화산동 터틀 뒷편
문의 : 229-1113 / 019-526-1490
플러스 옵션
박상용(안토니오)

조상님을 영구보존으로 모시는 **孝** 실천

진공 주석 유골함/망인 초상 금속사신

(주)도남

이진호(실베스텔)

문의 : 063-282-0138, 018-231-8181

제주 성이시들 피정

(미사, 말씀, 종교해설사, 자연피정, 성지순례)

때 : 6월10-13일, 6월17일-20일, 6월24일-27일,

7월8일-11일, 7월20일-23일, 7월27일-30일

장소 : 제주 성이시들 목장 내

신청 : 02-773-1455 성이시들 피정센터

대정항문병 전문병원 장문외과

치질·변비·유방클리닉
전문의 최성영(루가)
전문의 안해선(사도요한)
전문의 이철중

www.jangmun.com
대표전화 ☎(063)834-6000
익산 영등동 육교 밑

새롬 리모델링

리모델링 / 싱크대 제조 전문업체

김영대 (가브리엘)

☎ 063)275-9236~7
011-294-6471

유* 사랑 외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우성(스테파노)

사신동 T마트앞
☎(063)253-6075

엠마오하우스 펜션 제주도 관광안내

아름다운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는 엠마오하우스는
여러분의 여행을 편하고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문의 : 010-4733-5005
064-752-6159

대표 : 좌순옥 (가밀라)/고세영(영주 바오로)

최고의 전국 꽃배달서비스

진선미 꽃집

범근배(방지거) · 박선자(루시아)

중화산동 빙상경기장~도청사이

☎ 222-0004

한국 평협 1차 상임위 새 교구청사서 개최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지도=민병덕 신부)는 지난 5월 26일과 27일 전주에서 2007년도 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치명자산 자락에 위치한 새 교구청사에서 치러진 이날 상임위원회의에서 한국평협 회장단과 분과위원장, 각 교구 평협회장단, 한국평협 상임위원 단체 대표 등 14개 교구 70여명이 참석해 각 교구 당면 과제와 성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특강과 심포지엄을 비롯해 전주교구 소개 영상물 상영, 상임위원회, 파견미사, 성지순례, 새만금 방문 등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서동호)가 준비한 일정이 차례로 진행됐다. 이병호 주교는 이날 특강을 통해 “바쁜 삶속에서도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것을 보면서 감명과 감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며 “하느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길이다”고 격려했다.



특히 한국평협은 이날 상임위에서 토의 안건으로 제시된 ‘한국천주교 교육실태 조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홍순 한국평협 회장은 “교구설정 70주년을 맞아 새롭게 문을 연 전주교구청에서 첫번째로 자리를 내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하느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홍보국 정리

● 성령쇄신 봉사회 성령강림 성령대회

전주교구 성령쇄신 봉사회(회장 안득수)는 지난 5월 22일(화) 오전 9시 오전 성당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성령강림 성령대회를 가졌다.

‘신앙 생활의 쇄신’이라는 주제로 오전에는 임언기 안드레아 신부(미리내 성지 묵상회집원장)의 강의를 있었다. 강의 내용중에 성령을 받는 방법은 성사와 기도생활이라고 강조하였고 체험담과 함께 많은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특히 본인이 결핍을 느낄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며 하루에 열번이상 감사하는 마음, 미사중에 우리 자신을 봉헌한다면 내적치유는 물론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삶으로 바뀐다고 강조했다.

봉사자들의 찬양과 아름다운 울동 찬미속에 하나된 교우들은 강의와 안수기도를 받은후 하나된 마음으로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의 감사와 축복미사로 하루일정을 마쳤다.

홍보국 정리

교구 보도기자가 없는 본당의 주요행사나 소식을 홍보국으로 보내 주시거나, 취재요청을 해주시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

교통 사고 보상 상담

손해사정인

황 선 주 (프란치스코)

☎(063)236-1040

H·P 011-659-4985

젼인아트

전진아 (실비아)

부부국가자격보석감정사

미국보석학회GIA 감정사

☎(063)462-7777 / 018-648-7777

르노삼성자동차

NEW SM5-SM3-SM7

교사/교직원/호국보훈고객 20만원 추가할인

무이자 및 3.9%~5.5% 저리할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담 : 홍과장

문의 : 222-2282, 011-9439-0112

대학병원 처방 전문 대학종로약국

약사 정귀진(요셉)
배석환(엘리아)
한홍욱(크리스티나)

전북대학병원 제2주차장 앞

☎(063)274-5425, FAX274-5424

편리한 유향외과

유방·갑상선·하지정맥류

치질·대장수면 내시경 전문

원장 전문의 : 김상수(안토니오) / 이종재

Tel : 277-7582~3

덕진구 송천동 G.S마트 옆

의료법인 영 의료재단(한방·양방 협진)

익산효요양병원

저렴한 요양비로 어르신들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행정실장 송인호(파비아노)

☎ 016-335-8175

상담전화 : (063)858-9998

주소 : 익산시 모현동1가 245-5

호성냉동

· 에어콘 · 저온 창고 · 업소용 냉장고

· 에어커터 · 에어커텐 · 버섯재배 설치

양태수(요왕) · 김경민(마리아)

☎(063)242-4959 H·P 011-659-8085



교구장 일정

- **인보성체수도회 종신서원식**
6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 **사목방문**
6월 8일(금) 오전 10시 삼천동
- **건진**
6월 9일(토) 오후 4시 호성동
6월 10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숲정이

미사·행사·모임

- **교구 성직자 위령 월레미사**
6월 4일(월) 오전 11시
- **재경 사제양성후원회 월레미사**
6월 4일(월) 오후 2시 유람아트홀
- **도청 로사리오회**
6월 4일(월) 오후 7시 40분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전주 월레미사**
6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 **영상으로 드리는 기도 모임**
6월 5일(화) 오후 7시 바오로팔서원
대상: 미혼 여성 30대 미만
- **가정방문실 미사**
6월 8일(금) 오후 2시 30분
- **가톨릭 문우회 월모임**
6월 9일(토) 오후 3시 센터
- **예비 신학생 월모임**
6월 10일(주일) 오후 1시 30분 윤호관
- **서전주하나회 미사**
6월 10일(주일) 오후 2시 삼천동
- **포콜라레 모임**
6월 10일(주일) 오후 2시 복자성당교육관

교육·피정·연수

- **레지오 단원 교육**
6월 4일(월) 창인동
-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
6월 5일(화) 오후 2시 삼천동
- **직장인 창세기 봉사자 연수**
6월 5일(화)~6일(수) 오후 8시

• 사제성화를 위한 9일기도 시작
6월 6일(수)~14일(주일)

- **부모·자녀 참만남(MBTI를 활용한)**
6월 3일 오후 1시 30분(성격유형검사 있음)
10일, 17일(주일) 오후 2시
대상: 청소년(중·고생) 자녀와 그부모
(부모자녀가 함께 참석)
내용: 3일-성격 특성과 자기와 타인 이해
10일-부모·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17일-부모·자녀 참만남을 위한 모색
강사: 김정민 신부와 청소년 전문상담가 2인
참가비: 2인 5만원 / 장소: 센터
마감: 5월 31일 / FAX: 285-0049
접수 및 문의: 285-0041 가정사목부

- **부부 성장을 위한 교육**
6월 7일, 14, 21, 28, 7/5, 12, 19, 26매주(목)
오후 7시 센터
대상: 부부, 부부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
강사: 김정민(가정사목 신부), 박운자(상담심리), 정미진(상담심리)
참가비: 1인당 7만원 / 마감: 6월 4일(월)
문의: 285-0041 가정사목부

● 수도회 성소모임 안내

수도회명	모임일시	모임장소	문의
사랑의 씨튼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용머리 성당 수녀원	010-5705-5004
성바오로말수도회	첫째 (화) 오후 7시	전주 바오로말 서원	063-252-3398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호성동 성당 수녀원	063-244-0094
콘베뚜알 프란치스코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노송동 인보성체수녀원	02-793-2070
마리아의 딸 수도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복흥공소	063-653-8004
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첫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솔내 성당	063-858-4724
경로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해월리 경로수녀원	063-243-1440
예수수도회(익산)	둘째 (수) 오후 7시 30분	익산 성모병원(떼제기도모임)	010-7250-7049
아씨의 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군산 나운2동 성당 수녀원	063-467-9200
작은 예수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동산동 전주장애인공동체	063-212-1589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셋째 (토) 오후 6시	가정방문실	016-634-5637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화산동 성당 수녀원	063-225-3675
전교 가르멜 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3시	서산동 성당 수녀원	063-274-9262
노들담 교육 수도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호성동 동산1동 1303호	063-246-8376
예수 성심 시녀회	넷째주일 오후 3시	아중성당수녀원	016-649-2045
미리내 천주성심수도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031-674-1251
인보성체수도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중노송동 본원	063-284-3231
선한목자 예수수녀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서울 길음동 본원	02-919-2754
까리따스 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덕진 수녀원	063-272-5304
서울성가 소비녀회	셋째 주일 오후 3시	효자동 수녀원	063-223-3822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3층 설소국	011-9852-9817
관상·착한목자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성가정의 집	011-9653-8805
성가정 카푸친수녀회	넷째 주일 오후 4시	동산동 아이고의 집	063-214-4041

기타

- **놀토에 떠나는 우리가족 체험학습 공예교실**
일시: 5월, 6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상: 초등학생(1~3) 자녀를 둔 10가족
장소: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
참가비: 무료(간식 준비)
문의: 선착순 방문 및 접수
232-0334

- **전주 카리타스봉사단 교육(6월, 11월)**
6월 2일(토)~3일(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전주가톨릭신학원(윤호관)
회비: 5,000원
접수처: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284-5290, FAX 284-4855
e-mail: sarangdari.hanmail.net
※수료증은 11월 2차까지 교육을 이수하셔야 발급받습니다.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헌금(5/20~26)
김석태 3,000,000

씨튼 영성의 집
제목: 향심기도(침묵) 소개피정
일시: 6월 11일(월)
제목: 향심기도(침묵) 3박4일 후속심화피정
일시: 6월 18일(월)~21일(목)
문의: 씨튼영성의 집
041-733-2992~4
www.setoncent.or.kr

청소년유림1기개도시생자순례단모임
로마·비엔나·바르샤바·부다페스트++
일시: 7월 28일~8월 10일까지(14일)
비용: 330만원
(예약: 50만원 잔액 6월 28일까지)
문의: 삼성산 미리아센터
017-744-3232

30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주최: 마신부님(Rev. Brendan MacHale)
초·중생: 7월21일~8월19일
(3주, 4주) 427만원~
대학생: 6월24일~8월12일(7주) 625만원
문의: (주)그린피스 E&T 02-569-1331

삼성산 성지 2박3일 치유대피정
일시: 6월 8일 오후 6시~10일 오후 3시
장소: 삼성산 성지 대성전(무로/식사제공)
미사: 송광섬(베드로) 신부
02-874-6346
문의:곽노철(베로) 회장
011-721-7808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도통동

주임신부 : 625-0091 사무실 : 631-0091 주임신부 : 김 의 태
F A X : 633-0081 수녀원 : 635-0091 사목회장 : 김 기 장

- ◎ 금주 구역성경 쓰기 : 잠언 30장 15절~코헬렛 4장
- 1. 오늘 ① 삼위일체 대축일 ② 꾸리아 ③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 2. 금주 ① 사목회 6일(수) 후8시 ② 성시간, 성체강복 7일(목) ③ 사도모임 8일(금) 미사 후
- 3. 성지순례를 위한 9일 기도 : 6월 1일(금)~9일(토)까지(매 미사 전)
- 4. 차주 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② 전신자 성지순례 : 갈매문, 해미성지 출발 전 8시 30분 (당일 본당 미사 없습니다.)
- 5. 성전신축금 : 적금단(이효영 300만, 안영미 200만, 양기춘 100만, 김성호 100만) 폐지판매 6만원
- 지난주 봉헌금 : 1,008,000원 ■ 교무금 : 1,840,000원

무 주

주임신부 : 322-2308 사무실 : 324-0555 주임신부 : 이 상 용
유 지 원 : 324-3555 수녀원 : 322-2399 사목회장 : 김 연 태

- ◎ 성서읽기 : 6월 첫째주간-집회서29장~35장
- ◎ 공소미사 : 금주-안성, 차주-설천공소
- ◎ 성당청소 : 6월9일(토) - 다양1,2반
- ◎ 미납된 교구청 신축기금 봉헌에 관심을 가집니다.
- 1. 모임 ① 사목회-6월7일(목) 후8시 ② 울뜨레아-교증미사 후 ③ 성모회-6월8일(금) 전10시 미사 후
- 2. 금주전례 : 해설-김기옥, 독서-변상욱 부부, 봉헌-양호일 부부
- 3. 차주전례 : 해설-이명숙, 독서-이관승 부부, 봉헌-임기열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629,000원 ■ 교무금 : 500,000원

순 창

주임신부 : 653-1004 사무실 : 652-1004 주임신부 : 송 운 석
F A X : 653-0414 수녀원 : 653-3135 사목회장 : 정 윤 열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6521004>

- ◎ 첫영성체-10일(일) 10시 미사중(많은 기도 바랍니다)
- 1. 금주모임 : 사목회, 안나회-미사 후, 구역장모임-6일(수)미사 후
- 2. 차주모임 : 여성분과, 요셉회-미사 후
- 3. 청소 : 금주-자모이신 마리아, 차주-정의의 거울
- 4. 차량봉사 : 이우철 김호, 차주-장경호 유영선
- 지난주 봉헌금 : 931,390원 ■ 교무금 : 1,890,000원

쌍 교 동

주임신부 : 633-1004 사무실 : 633-4004 주임신부 : 박 성 팔
유 지 원 : 633-4006 수녀원 : 626-1004 사목회장 : 양 성 작
홈페이지 : <http://www.ssangkyo.org>

- ◎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있으소서!" (복음 환호송).
- ◎ 본당의 날(야외미사) : 17일(일) 전 10시 30분, 장소 - 원천초등학교 ※ 출발 9시, 점심은 각 구역별로 준비.
- ◎ 예비신자 봉헌 서약서 : 6월 10일과 17일 미사 중 봉헌바랍니다.
- 1. 예비신자 교리 시작 : 6월 19일(화), 많은 인도바랍니다.
- 2. 축 첫영성체 : 6월 10일(일) - 많은 기도 바랍니다.
- 3. 파티마의 성모님 본당 방문 : 6월 8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 4. 선교를 위한 목구멍 100만단 봉헌운동 : 현재 699,290단
- 5. 센터 신축현금 신입액 : 159,924,000원, 납입액 : 131,197,000원
- 지난주 봉헌금 : 1,773,500원 ■ 교무금 : 1,837,000원

진 안

주임신부 : 433-0750 사무실 : 433-2541 주임신부 : 장 식 수
F A X : 433-7599 수녀원 : 433-1531 사목회장 : 구 동 수
안들공소 : 433-3177 유 지 원 : 433-2293

- ◎ 7월 14일~15일 어르신캠프 참가하실 분 신청 받습니다. 사무실(회비 10,000원)
- 1. 금주 ① 3일(오늘) 미사 후 꾸리아 ② 5일(화) 전9시 근하2반 가정방문 ③ 6일(수) 성지순례 절두산 오전 7시 출발 ④ 7일(목) 어른동미사 전6시, 미사 후 사목회 ⑤ 9일(토) 첫영성체 대상자 세례식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오 수

주임신부 : 644-9386 사무실 : 642-6319 주임신부 : 서 종 석
F A X : 642-6319 사목회장 : 변 용 섭

- 1. 6월12일(화) 저녁8시 사목회의
- 2. 성모의 밤 행사 협조에 감사합니다.
- 3. 병자방문 신청해주시시오.
- 4. 차량봉사 감사합니다.
- 5.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목구멍 누계 : 205,109단
- 6. 성서를 통독 합니다.
- 7. 금주전례 : 해설 - 전미숙, 독서 - 김진태, 박춘향
- 8. 차량봉사 : 김옥기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9. 차주전례 : 해설 - 조경희, 독서 - 박태규, 김양래
- 10. 차량봉사 : 이기를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임 실

주임신부 : 643-3661 사무실 : 642-2164 주임신부 : 박 중 중
F A X : 642-2164 수녀원 : 643-3660 사목회장 : 노 제 진

- 1. 공소미사 : 신평-6일(수) 후, 7시
- 2. 성체강복 : 7일(목)후, 7시 30분
- 3. 구역미사 : 6월8일(금) 후, 8시 -임실 2구역(김계순 아가다 맥)
- 4. 본당설립 50주년 기념 : 누계 66,834,131원
- 5. 차주전례(6월10일) ① 해설-황연옥 ② 독서-노재진 부부 ③ 봉헌-박 탁 부부
- 6. 사목회의 : 6월 5일(화요일) 저녁미사 후(분도관)
- 7. 구역모임 ① 7일(목)-청용 ② 8일(금)-가리점 ③ 9일(토)-덕치
- 8. 청소 담당구역 ① 오늘-신평 ② 6월8일(금)-임실1, 6 ③ 6월10일(일)-청용
- 지난주 봉헌금 : 854,500원 ■ 교무금 : 1,050,000원

장 계

주임신부 : 353-0610 사무실 : 351-0111 주임신부 : 염 기 봉
F A X : 351-0606 수녀원 : 353-0611 사목회장 : 이 성 화

- ◎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 삼고신자 초대주일
- ◎ 주일성서와함께 미사에 항상 성경책을 갖고 참례 합니다
- ◎ 주교님 사목방문에 수고하여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 1. 효도관광 : 일시 6월 7일 (목) 8시30분 출발 ※ 할아버지, 할머니 효도관광 사무실에 신청하십시오. ※ 참가비 1인 5,000원, 장소 경남 남해안
- 2. 병자봉성체 : 6월1일(금)오후2시
- 3. 기도 묵상회 : 오늘(3일) 주일미사 후
- 4. 장안산 등반 : 미사 후 오후2시 출발
- 지난주 봉헌금 : 814,500원 ■ 교무금 : 290,000원

장 수

주임신부 : 351-8888 사무실 : 351-2264 주임신부 : 정 진 봉
F A X : 351-5226 수녀원 : 351-1228 사목회장 : 박 동 표

- ◎ 오늘은 삼위일체대축일입니다.
- ◎ 주교님 사목방문과 성모의 밤 행사에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 사목회 : 6일(수) 저녁미사 후
- 2. 성체강복 : 7일(목) 저녁미사중
- 3. 금주 공소미사 : 수분, 하동
- 4. 차주 참석공소 : 변안
- 5. 금주전례 : 김호준, 차주-박덕순
- 6. 금주독서 : 조스페파노, 이형순, 차주-정영수, 최선영
- 7. 금주봉헌 : 이영기, 김원남, 차주-김삼석, 김옥순
- 8. 차량봉사 : 금주 - 김철수, 차주-이지수
- 지난주 봉헌금 : 415,000원 ■ 교무금 : 490,000원

- 2. 차주 ① 10일(일) 미사중 첫영성체 예식, 미사 후 이명서 베드로회 ② 12일(화) 전9시 근하3 가정방문, 전10시 구역반장모임 ③ 14일(목) 전9시 근하4반 가정방문 ④ 16일(토) 미사 후 만나회, 후 8시 어른동미사
- 3. 전신자 성지순례에 봉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121,000원 ■ 교무금 : 290,000원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7년 5월 26일 현재)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삼례, 장계, 옥봉, 만경, 둔율동, 진안, 소양, 영등소라, 대야, 금암동, 장수, 나바위, 고창, 오수, 조촌동, 여산
- 신축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쌍교동, 신평, 중앙, 나운2동, 수류, 원평, 숲정이, 나운동, 고산, 신태인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팔복, 용안, 순창, 서학동, 월명동, 우림, 신동, 무주, 서신동, 영등동, 인후동, 우전, 덕진, 임실, 복자, 오룡동, 시기동
-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소룡동, 봉동, 덕진, 금마, 용진, 팔마, 솔내, 함열, 노송동, 주현동, 효자동, 요촌, 부안, 송천동, 호성동, 용진, 연지동
-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삼천동, 미룡동, 화산동, 송학동, 지곡

▶ 제13회 생명의 날 담화문(요약)

오늘 우리 사회에서 생명의 가치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마저 희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존하고 유지하여야 할 생명이 오히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희생되거나, 심지어 실험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며, 더욱 하느님을 생명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느님께 대한 심각한 불순종입니다.”(생명의 복음 57항)

무고한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언제나 ‘도덕적인 악’이며, 비록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일지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침해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어느 단체에게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이 배아이든, 태아이든, 유아이든, 성인이든, 경제력이 없는 노인이든, 심각한 심신의 장애자이든, 불치병의 환우이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복음 57항 참조).

청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자살률’과 ‘세계적 수준의 낙태 시술 국가’라는 통계는 우리 생명 의식의 수준과 문화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 십 년간 ‘인구 정책’과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고의적 낙태’를 합법적으로 조장하였던 ‘모자보건법’은 어떻게 국가 권위가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잘 보여주며,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사례입니다.

생명 공학의 발전을 위해 배아의 실험을 합법화하고, 실험을 위해 난자의 증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경제적 논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배

아 실험은 불가피하게 배아의 살해를 수반합니다. 인간의 배아나 태아를 실험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배아 역시 출생할 아기들을 존중하는 것과 똑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에서부터 공동의 윤리적 노력을 기울여 ‘생명 문화의 쇄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생명 문화의 쇄신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오직 하느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생명의 불가침성을 인식하는 ‘양심의 형성’이 그 기본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성과 사랑의 올바른 가치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혼인한 부부들에게도, 출산을 통해 생명의 신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훈련되어야 하며 가정은 ‘생명의 성역’으로서 생명 문화 쇄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 문화의 쇄신에는 또한 여러 교육 기관의 선생님들과 생명 과학에 종사하는 연구원, 생명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의료인이나 보건 정책 관계자, 다양한 언론 매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맡겨져 있으며, 그 분들의 도움도 절실합니다(생명의 복음 95-98 참조).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생명을 공격하는 것은 하느님을 공격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생명의 복음 9항) 교도권의 가르침대로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오직 그 안에서만 인간은 참된 자유와 정의, 발전,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생명의 복음 5항)

2007년 5월 27일 제13회 생명의 날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위원장 안명옥 주교